



2013년 5월 6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G2 경기와 구리

• 이머징마켓 동향

수급 개선 기대로 본토 및 H지수 동반 상승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한국타이어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성전자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건설,

SK C&C, SK텔레콤, 스카이라이프, 현대에이치씨엔,

CJ제일제당, 고려아연, 넥센타이어, 동아에스티, 두산인프라코어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4/25(목)	04/26(금)	04/29(월)	04/30(화)	05/02(목)	05/03(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51.60	1,944.56	1,940.70	1,963.95	1,957.21	1,965.71	
	등락폭	16.29	-7.04	-3.86	23.25	-6.74	8.50	
	등락종목	상승(상한)	441(2)	428(4)	376(6)	505(4)	318(5)	500(2)
		하락(하한)	374(0)	369(0)	428(3)	290(4)	486(1)	302(0)
	ADR	98.55	96.30	97.67	102.81	100.88	108.48	
	이격도	10 일	101.49	101.02	100.71	101.70	101.17	101.27
		20 일	100.57	100.36	100.31	101.57	101.29	101.71
	투자심리	60	60	60	60	50	60	
	거래량 (백만 주)	335	280	266	403	350	307	
	거래대금 (십억 원)	4,598	4,068	3,648	4,975	4,181	4,125	
코스닥	코스닥지수	559.40	565.35	568.36	563.87	560.48	565.33	
	등락폭	-4.41	5.95	3.01	-4.49	-3.39	4.85	
	등락종목	상승(상한)	441(12)	428(9)	376(10)	505(9)	318(14)	595(10)
		하락(하한)	374(7)	369(0)	428(1)	290(4)	486(4)	324(0)
	ADR	97.98	98.55	100.61	102.21	101.23	109.19	
	이격도	10 일	101.05	101.79	102.07	101.17	100.53	101.14
		20 일	101.76	102.75	103.16	102.24	101.60	102.39
	투자심리	60	60	60	60	50	60	
거래량 (백만 주)	547	490	442	506	454	472		
거래대금 (십억 원)	2,958	2,532	2,429	2,704	2,317	2,241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033.3	962.1	1,118.5	182.8	178.1	327.5	69.4	31.2	329.477	33.9
	매도	2,124.4	993.1	989.1	200.1	141.5	295.4	61.4	26.4	264.2	41.2
	순매수	-91.1	-31.0	129.4	-17.3	36.6	32.1	8.0	4.7	65.3	-7.3
	05월 누계	47.2	-118.1	96.2	-54.6	40.9	6.2	13.4	5.9	84.4	-25.3
	13년 누계	1,119.6	-5,873.6	5,199.4	1,726.7	679.1	-1,414.7	168.7	94.9	3,944.7	-445.4
코스닥	매수	2,033.1	120.4	91.2	17.8	13.0	29.3	4.8	3.3	22.9	14.8
	매도	2,040.6	89.4	108.9	22.2	9.8	32.3	5.2	2.0	37.5	20.6
	순매수	-7.5	31.0	-17.7	-4.3	3.3	-3.0	-0.4	1.3	-14.6	-5.8
	05월 누계	82.8	7.3	-74.8	-12.2	-0.5	-26.2	-9.4	-0.8	-25.7	-15.3
	13년 누계	-1,407.7	725.8	1,028.3	70.1	52.9	361.6	-75.1	-12.4	642.0	-346.4

G2 경기와 구리

5월 월간 밴드	1,900-2,020pt
2013년 연간 밴드	1,800-2,250pt
12MF PER	9.2배
12MF PBR	1.03배
Yield Gap	8.4%P

- ▶ 미국 주택 시장 회복 지속 여부에 주목: NAHB지수의 하락 반전 및 목재 가격 하락
- ▶ 구리는 미국 경기와 더불어 전체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 점검에 중요
- ▶ 중국의 구리 최종 수요 대변하는 지표의 의미있는 개선세 부재한 양상
- ▶ 다만 최근 상해 구리 프리미엄의 반등과 재고 감소는 선행적으로 고려시 가격 지지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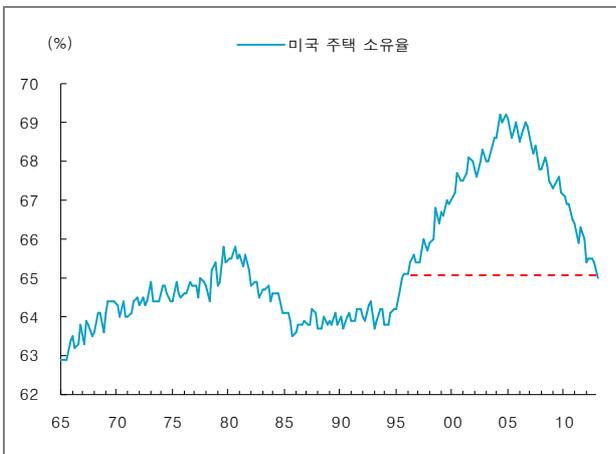
■ 미국 주택 시장 회복의 지속성 여부에 주목

미국 주택시장 회복세는 증시의 상승세의 이유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강해졌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주택 시장 회복세는 고용 창출 및 민간부문의 센티먼트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주택시장이 위기 이후 움직여온 궤적을 살펴보면 최근에 몇가지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다.

주택 시장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회복의 양상은 버블 붕괴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의 주택 소유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위 ‘주택 시장 회복세’는 주택 소유의 증가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다. 주택 착공 건수를 살펴봐도 단일가구(Single family) 주택보다는 다가구(Multi family)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만에도 훨씬 높았던 단일가구 주택 착공 건수는 최근 통계에서 다가구 주택 착공 건수에 역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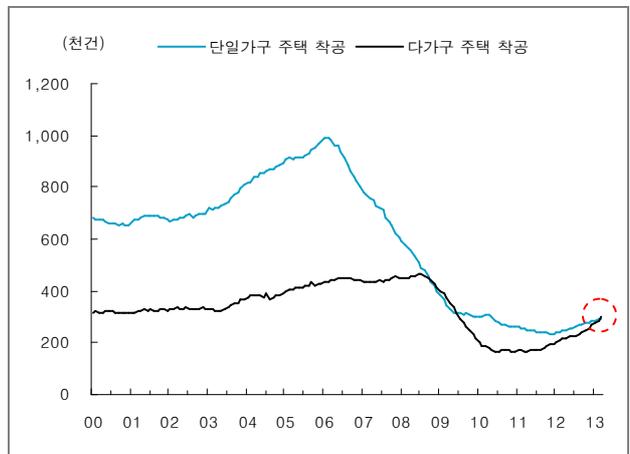
사람들이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기 보다는 세들어 사는 가구가 많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부의 효과는 주택 보유율이 높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주택 가격과 렌트 가격의 움직이는 모습도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1] 미국 주택 소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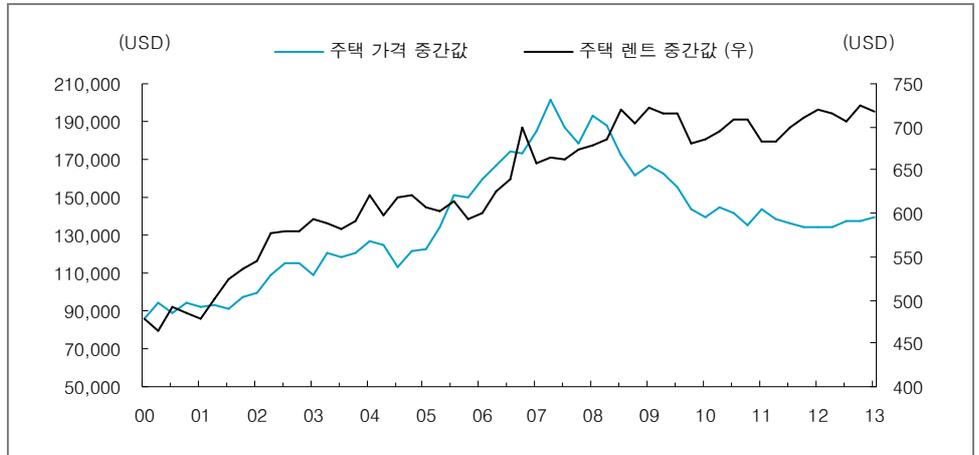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단일가구 주택 및 다가구 주택 착공 건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주택 렌트 및 가격 중간값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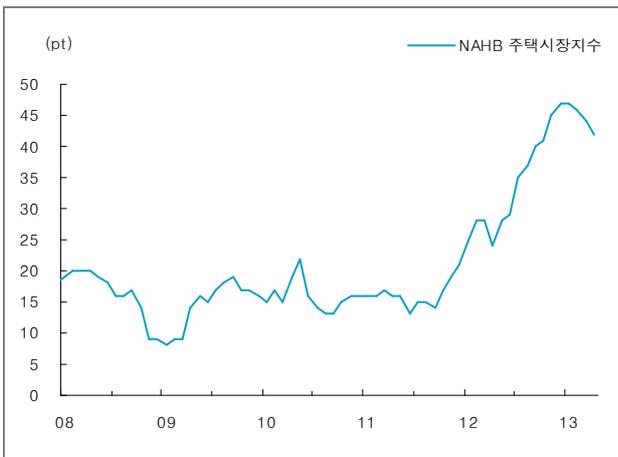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물론 이러한 구조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주택 시장 전반의 회복세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주택 경기 회복이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이 증가할 경우, 08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 가치 및 소유욕을 자극하는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주택 건설 경기를 볼 때 한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이슈가 생겼으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지표 흐름의 의미까지 퇴색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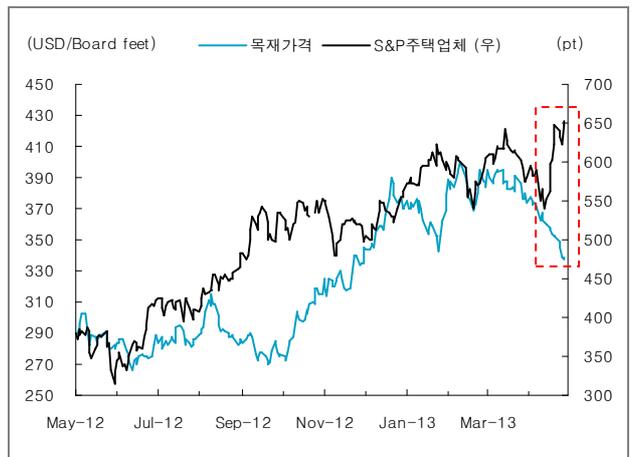
최근 미국 전반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지표도 회복세의 지속성 측면에서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최근 상승세를 이어온 NAHB 주택 시장 지수가 50을 목전에 두고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목재 가격과 S&P 주택업체지수가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림 4] NAHB 주택시장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S&P 주택업체지수 및 목재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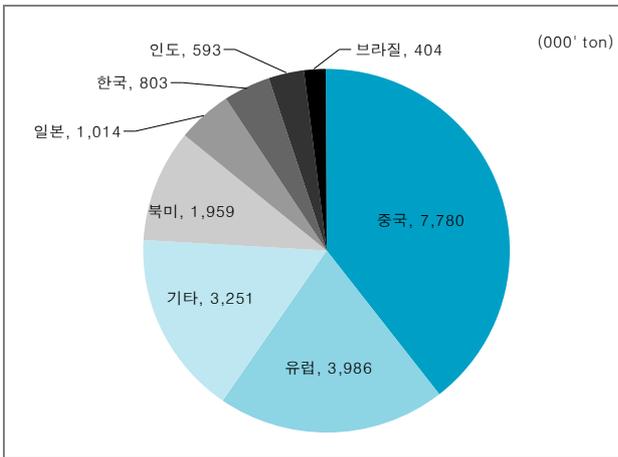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중국 경기와 미국 경기를 반영하는 원자재: 구리

중국 역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4월 HSBC 제조업 PMI는 50.4로 하향전환했고, 1분기 GDP는 예상치인 8%에 못미치는 7.7%에 그쳤다. 대외 수요 감소를 내수로 메우지 못했고, 부동산 규제와 제조업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경기 반등 기대가 지연되고 있다.

그만큼 G2인 미국과 중국 경제의 모멘텀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두 국가의 경기를 함께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원자재로 구리를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구리 수요 중 약 1/3이상이 주택시장에서 오는 것으로 집계된다. 주택 경기 회복세가 힘을 잃는다면 구리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구리 가격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역시 중국이다. 전세계 구리 수요의 약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구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가 가격에 가장 중요한 변수다.

[그림 6] 국가별 구리 수요



주: 2011년 기준
자료: Wood McKenzi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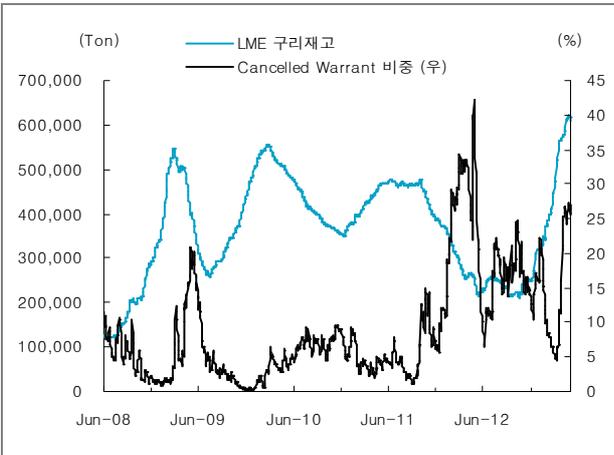
[그림 7] 산업별 구리 수요



주: 2011년 기준
자료: Wood McKenzi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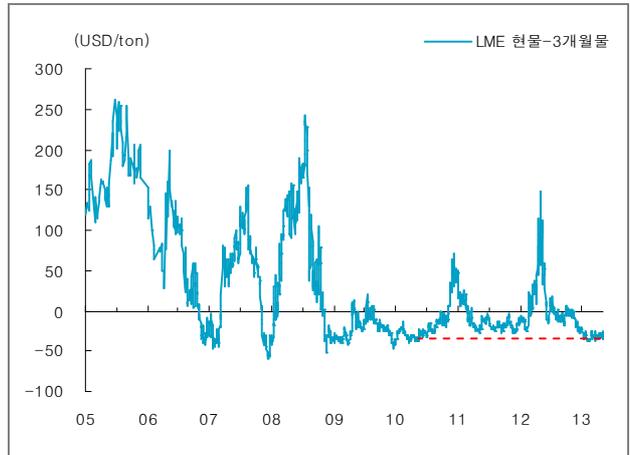
금속 거래소의 재고와 가격 패턴은 구리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LME(런던 금속 거래소)의 재고로 보면, 구리 재고는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10년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같은 기간동안 LME 선현물 가격은 백워드이션에서 콘탱고로 돌아섰다. 현물 수요를 설명해주는 LME의 Cancelled Warrant가 급증한 부분은 콘탱고 수준이 2010년래 가장 높아지면서 스프레드 축소를 감안한 움직임으로도 해석가능하다.

[그림 8] LME 구리 재고 및 C/W 비중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 LME 구리 현물과 3개월물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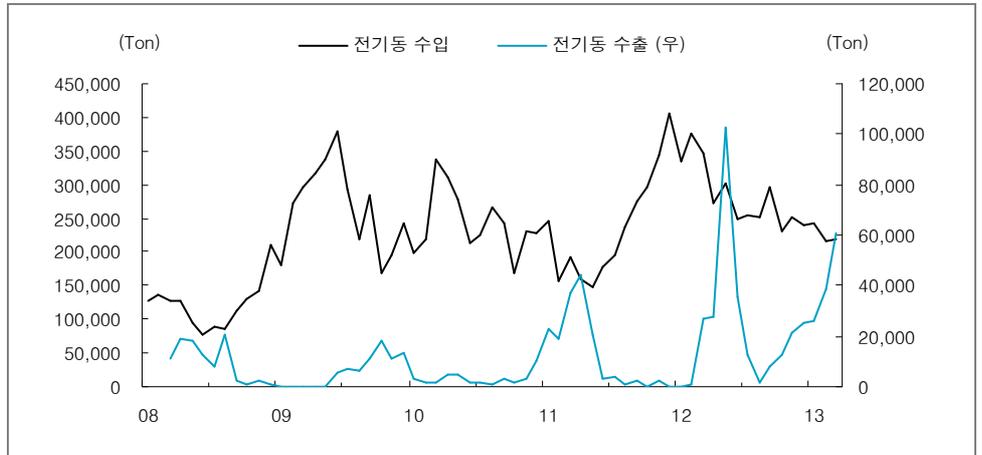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LME 구리 재고의 상승은 중국의 용자동 이슈와도 연결된다. 용자동이란 중국 그림자 금융 수단으로써 구리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일단 LME에서 구리 선물을 매수한 뒤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급받아 그것을 담보로 또 다른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고, 그 자금을 그림자 금융 시장에 재대출해 마진을 취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중국 국내에서 구리를 매입하고 그 창고증권을 담보로 대출 받은 뒤 그림자 금융 시장에 재대출하는 방식도 있다. 시장 추정에 의하면, 중국 보세 창고에 쌓여있는 구리 재고는 약 60~80만톤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LME 재고 전체를 넘어서는 양이라는 점에서 구리 재고 및 가격 흐름에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내에서는 구리 조달을 위해 굳이 LME 창고가 아닌 자국 보세 창고에서 조달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ME 창고의 구리 재고 움직임은 그 의미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중국 당국의 용자동 규제, SHFE와 LME의 차익거래 기회 부재, 전반적인 구리 공급 과잉으로 중국의 구리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은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글로벌 구리 재고의 하락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분명한 중국의 구리 수요 회복이 관찰되기 전까지는 구리에 대한センチ멘트가 구조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CB의 금리 인하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감으로 구리가 반등하며 지속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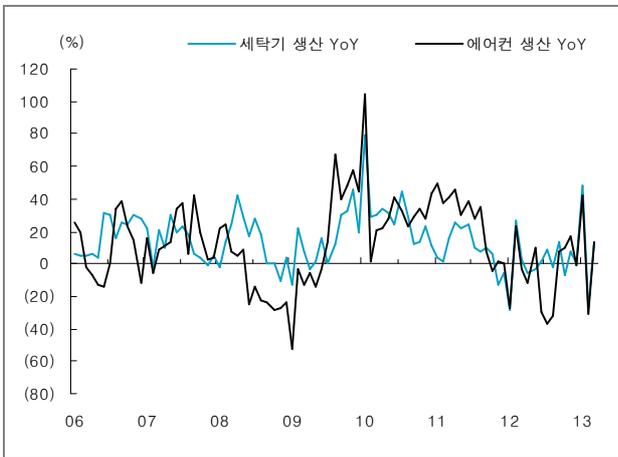
[그림 10] 중국 전기동 수출 및 수입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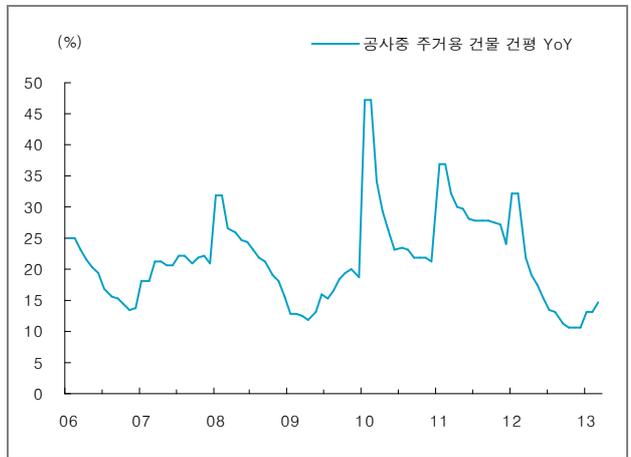
중국 구리 수요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뚜렷한 반등의 기미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구리 최종수요는 전기생산, 건설, 가전 부문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구리를 사용하는 대표적 가전 제품인 에어컨이나 세탁기 생산량은 아직 주목할만한 증가라고 하기는 어려운 모습이며, 건설 경기와 고정자산 투자는 당국의 규제정책과 지방정부 재정 부실 이슈로 혼란을 치루고 있다.

[그림 11] 중국 에어컨 및 세탁기 생산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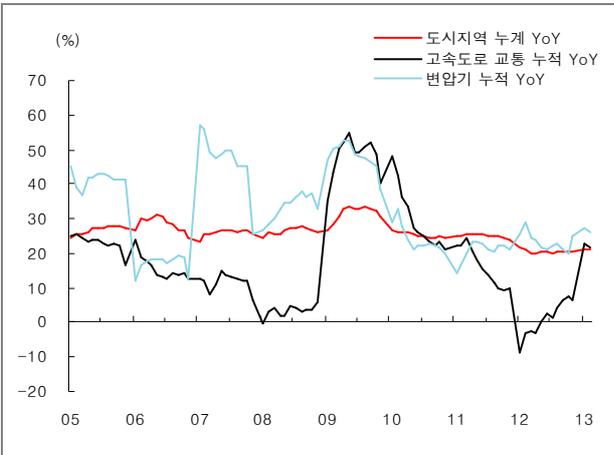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중국 공사중 주거용 건물 건평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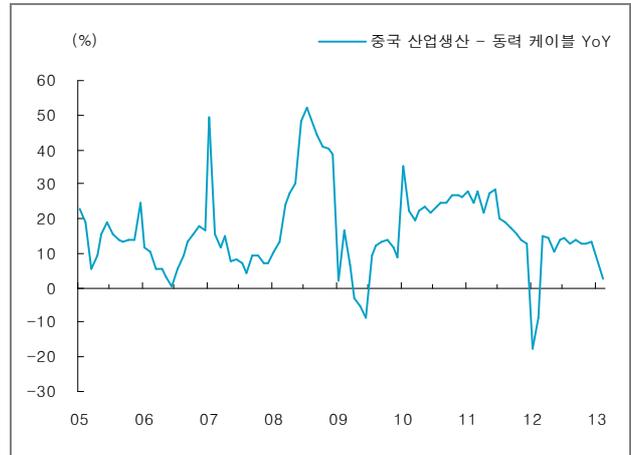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중국 고정자산 투자 YoY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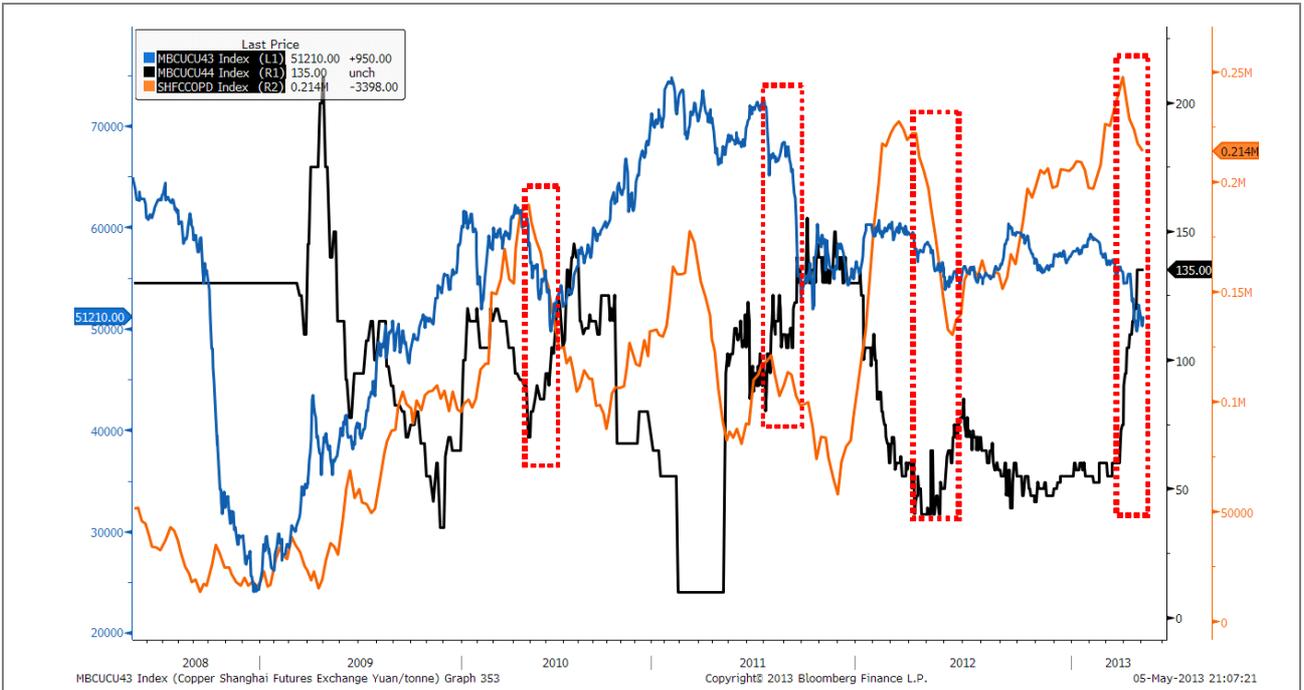
[그림 14] 중국 동력 케이블 생산 YoY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최근 상해 구리 프리미엄의 상승세와 SHFE의 구리재고 하락은 안도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지표들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구리 프리미엄의 반등이 구리에 대한 실수요를 선행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으로 감안한다면 이 구리 가격을 지지해줄 수 있는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패턴을 살펴보면 SHFE의 재고와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구리 프리미엄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구리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세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5] SHFE 구리 프리미엄, 구리 재고, 구리 가격



주: 검은색=상해 구리 프리미엄(위안/톤), 주황색=SHFE 구리 재고(톤), 파란색=SHFE 구리 가격(위안/톤)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수급 개선 기대로 본토 및 H지수 동반 상승

- ▶ <위안화적격투자자(RQFII)> 세척 발표로 수급 개선 기대 강화, 상해종합 하루 만에 반등
- ▶ 빠르면 상반기에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원책 발표 전망, 자동차 관련주 급등
- ▶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미국고용지표 호재, 본토증시 수급개선 호재로 H지수 반등

상해종합지수 반등.
증권, 자동차, 소재, 제지 등
업종 강세 뚜렷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하루 만에 1.4% 반등했다. 중국인민은행이 3월에 내놨던 <위안화적격투자자(RQFII) 관리방법>의 시행 세칙을 발표하면서 2,000억위안의 자금이 단기에 유입될 것이란 기대가 대두됐다. 증시 수급 개선 전망으로 증권주가 급등해 강세를 주도했다. 또 이르면 상반기에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원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으로 자동차 관련주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특히 BYD와 장성자동차는 6%나 급등했다. 증권(3.3%), 자동차(2.7%), 소재(2.6%), 제지(2.5%), 제약(2.5%), 교통운수(2.1%), 방직(2.1%), 항공(2.0%), IT (1.9%), 통신(1.9%), 미디어(1.8%) 등 모든 업종이 상승했다.

■ 홍콩 시장

H지수 하루 만에 반등.
자동차, 증권, 전력, 비철금속,
항공 등 업종 상승

홍콩H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최근 5년 내 최저로 발표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중국의 신임 증감회 주석이 자본시장 개방의 적극 추진을 언급했고 RQFII 규제 완화, 투자한도 승인 재개 등도 호재로 작용했다. 다만 오후 장에 항생지수가 기술적 요인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H지수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자동차 소비촉진정책 발표 기대로 동풍차, 장성자동차 등이 큰 폭으로 올랐고 자본시장 발전 기대로 증권주도 급등했다. 전력, 비철금속, 항공, 기계, 제약 관련 종목이 상승 마감한 반면 석유, 석탄, 철도 관련주는 하락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5/3(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205.50	1.45	0.96	1.27	-2.80
홍콩 H	10,845.99	0.19	0.68	-0.66	-5.16
인도 SENSEX	19,650.56	-0.43	1.26	0.75	1.15
러시아 RTS	1,400.63	0.95	0.91	-0.47	-8.27
브라질 보베스파	55,321.93	-1.05	0.61	-1.05	-9.24
베트남 VN	475.24	0.47	0.33	0.15	14.87
MSCI 이머징마켓	1,037.33	-0.08	1.46	-0.20	-1.69

주: 3일 오후 5시 45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글로벌 경기 개선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

- 미국증시는 고용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인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상승세로 마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하며 하락반전했으나,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되며 반등에 성공 1,965P를 회복하며 마감.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장중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으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승폭을 확대시키며 1% 가까이 상승. ECB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경제지표 호조 등이 글로벌 경기개선 기대감을 높이며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중국 자회사의 기업가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적 개선 기대감에 한미약품이 신고가를 경신. 또한 12년만에 신작 게임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바른손게임즈가 모회사인 바른손과 동반 상한가를 기록. 한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4월 완성차 판매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현대, 기아차의 국내 공장 생산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자동차부품주들의 강세가 돋보임. 반면,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CJ제일제당은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감

종목/테마	내 용
한미약품(128940) ▶180,000(+9.09%)	기업가치 상승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중국 자회사의 기업가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확대 등에 따른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중국 자회사는 1분기에도 30% 이상의 높은 외형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도 향후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
바른손게임즈(035620) ▶1,475(상한가)	신작 출시 기대감에 상한가 - 이달부터 '위드볼', '프로젝트B' 등 카카오톡 게임 2종을 포함한 신작들을 연이어 출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 오는 9일 신작 발표 쇼케이스를 통해 현재 개발 중인 게임 라인업과 향후 출시 시기를 공개할 예정으로 12년만에 출시되는 신작인 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와이브로주	와이브로 활성화 기대감에 강세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발언에 강세 - 모다정보통신(149940, +6.38%), 유비쿼스(078070, +3.93%), 기산탈레콤(035460, +2.97%), SNH(051980, +2.95%), 영우통신(051390, +2.89%) 등 강세
자동차부품주	완성차 판매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4월 완성차 판매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2분기부터 현대, 기아차 생산량 증가에 수혜 기대감에 강세 - 만도(060980, +10.71%), 넥센테크(073070, +7.54%), 새론오토모티브(075180, +6.57%), 화신(010690, +6.30%), 에스엘(005850, +4.55%), 현대위아(011210, +3.08%)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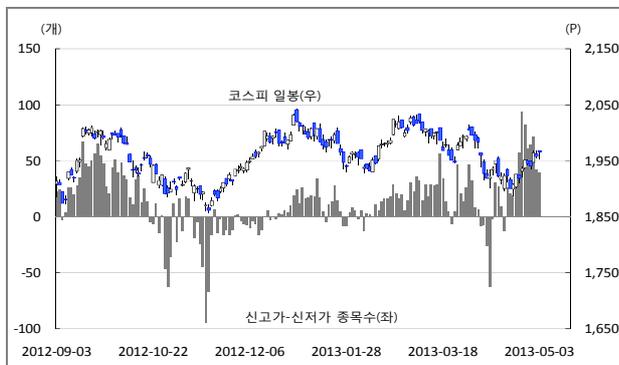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경기 방어적 성격 및 실적 개선 기대감이 돋보이는 헬스케어, 경기 소비재 섹터를 중심으로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
- 자산관리형 랩 판매잔고가 1조원을 돌파한 미래에셋증권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 속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쟁 완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 및 LTE 가입자 증가에 따른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SK텔레콤의 신고가 경신이 돋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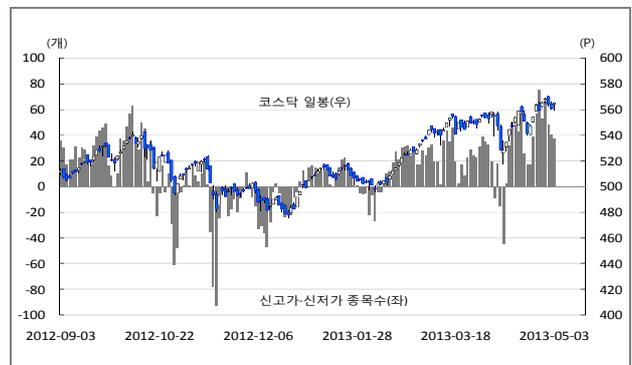
구분	섹터	업종	종목	52주 신고가		섹터	업종	종목	52주 신고가	
				주가(원)	등락률 (%)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소재	화학	미원화학	30,750	14.7	헬스케어	의약품	동화약품	7,170	7.0
	소재	종이목재	동일제지	2,830	2.9	헬스케어	의약품	삼진제약	14,500	13.7
	소재	종이목재	태림포장	3,400	7.3	헬스케어	의약품	한미약품	180,000	12.9
	소재	화학	경농	3,675	5.2	경기소비재	화학	대원화학	2,485	7.6
	금융	증권	미래에셋증권	47,100	7.7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신영외교루	122,000	2.1
	금융	미분류	SBI모기지	14,000	4.5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SJM홀딩스	6,100	6.8
	산업재	건설업	삼부토건	7,900	47.7	경기소비재	전기전자	세방전지	55,900	9.0
	산업재	화학	LG하우시스	99,600	1.9	경기소비재	운수장비	SJM	10,850	13.6
	산업재	화학	NPC우	1,525	8.2	경기소비재	운수장비	새론오토모티브	8,270	15.2
	산업재	서비스업	두산2우B	47,500	4.5	경기소비재	운수장비	인팩	5,520	6.6
	산업재	서비스업	두산우	49,400	5.1	필수소비재	음식료	동원산업	385,000	5.9
	헬스케어	의약품	종근당	63,000	5.5	통신서비스	통신업	SK텔레콤	211,500	10.7
코스닥	IT	화학	상아프론테크	6,730	6.0	산업재	전문기술	동화홀딩스	8,890	11.4
	IT	반도체	비아이이엠티	7,940	13.4	산업재	기계장비	넥스톤	4,340	11.9
	IT	통신장비	EMW	6,740	2.6	헬스케어	제약	이-글 벳	5,490	37.3
	IT	통신장비	유비쿼스	6,870	2.8	헬스케어	제약	대한뉴람	7,640	28.4
	IT	정보기기	빅솔론	13,650	4.6	필수소비재	금속	태양	6,950	1.3
	IT	기타제조	다스텍	2,735	5.2	필수소비재	음식료담배	네이처셀	981	21.7
	IT	소프트웨어	KG모빌리언스	17,650	5.7	필수소비재	음식료담배	풍국주정	5,390	5.7
	IT	디지털컨텐츠	조이맥스	52,400	14.3	경기소비재	운송장비부품	대원산업	7,790	9.7
	산업재	금속	보성파워텍	2,480	37.4	경기소비재	도매	삼천리자전거	16,550	6.8

주) 상기 종목들은 5월 03일 종가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코스닥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단기 유망종목: 한국타이어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한국타이어 (161390)	49,550 (+3.4)	47,900 (5/02)	- 투입원가 하락과 브랜드 입지 및 Product mix 개선 등으로 1분기 수익성 개선 - 미국 내 경쟁강도가 완화되는 가운데 하반기 중국 시장 회복 본격화 예상 - 글로벌 점유율 개선과 견고한 이익 안정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비에이치 (090460)	13,750 (-2.1)	14,050 (4/25)	- 모바일 서비스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퍼블리싱 게임 확대에 게임 매출 증가 예상 - RPS(Revenue Per Search; 검색쿼리당 매출) 상승에 힘입어 검색광고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기저 효과, 영업력 강화 등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다음 (035720)	91,000 (+4.8)	86,800 (4/11)	- 모바일 서비스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퍼블리싱 게임 확대에 게임 매출 증가 예상 - RPS(Revenue Per Search; 검색쿼리당 매출) 상승에 힘입어 검색광고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기저 효과, 영업력 강화 등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SK하이닉스 (000660)	29,550 (+3.3)	28,600 (3/21)	- 갤럭시S4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모바일 DRAM의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신규 스마트폰 및 SSD 보급 확대에 NAND수요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됨 - 업황 개선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이 예상되며, 하반기 PC 수요 회복 시에는 PC DRAM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
우주일렉트로 (065680)	28,550 (+3.3)	27,650 (3/05)	- 일본 경쟁업체 대비한 경쟁력 열위를 극복하여 주요 고객 내에서 점유율 확대 추세 - 금년 1분기에는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1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 IMT(In Mold Technology), FFC(Flexible Flat Cable), 자동차용 커넥터 등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부각 가능성 상존
기아차 (000270)	56,600 (+2.9)	55,000 (2/26)	- 1월 중국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1월 세계 시장 점유율도 사상 최고치인 3.9%(전년동월 3.5%)를 달성. 또한 최저 수준의 재고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3월과 5월에 K3와 K7의 미국 판매를 시작으로 신차 모멘텀 기대 - 신모델 출시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감안할 때 환율 안정 시에는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하이닉스, 기아차, 다음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삼성전자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성전자 (005930)	1,535,000 (+1.0)	1,520,000 (5/02)	235,178	42,197	31,496	202,968	7.6
-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계절적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 - 갤럭시S4 출시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감안할 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해소 예상							
대교우B (019685)	4,070 (+1.2)	4,020 (4/11)	789	62	63	673	6.0
- 유아 및 초등학교 시장 1위(점유율 35%) 업체로 러닝센터에 대한 투자완료로 2013년 이익 개선 예상 - 학습지 단가 인상 가능성과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성장동력 모색 - 풍부한 자산가치와 배당 매력도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가치주로서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2012년 DPS기준 우선주의 예상 배당수익률 5%를 상회							
유한양행 (000100)	209,000 (+12.4)	186,000 (3/21)	918	64	130	12,330	17.0
- 신제품 효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API(원료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화학(100% 지분 소유)의 증설효과가 예상됨 -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기저귀의 중국 수출 확대와 바이오 회사 지분투자 및 외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 유효 - 장기 성장성, 실적 모멘텀,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LG전자 (066570)	84,800 (+9.3)	77,600 (2/26)	53,357	1,562	1,116	6,197	13.7
- 2012년 휴대폰 부분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및 ASP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가전, TV, 에어컨 부분의 견고한 경쟁력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그룹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SK이노베이션 (096770)	145,500 (-14.7)	170,500 (2/06)	67,991	2,326	1,731	18,578	7.8
- 유가 안정과 경제마진 개선, PX/ BTX 등 주요 화학제품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1분기 실적 개선 예상 - 정유사업의 실적 변동성 축소로 인한 이익 개선과 석유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이익 규모를 유지할 전망							
대덕GDS (004130)	22,600 (+23.5)	18,300 (1/21)	578	58	49	2,156	10.5
- 모바일기기에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는 주력제품인 Rigid Flexible (R/F) FPCB 판매 호조를 견인할 전망 - FPCB와 모바일 메인보드용 HDI 매출비중이 2012년 55%에서 2013년 63%까지 확대되며, 가전에 탑재되는 범용 PCB 제품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직하형 LED TV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LED BAR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부의 제품 mix 개선에 따른 이익률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이노베이션, LG전자,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건설: 글로벌 EPC 배분전략

■ 불황에는 글로벌 EPC 업체의 차별화 심화

글로벌 EPC 시장에서 경쟁력은 전문상품 여부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강점이 가격이었다면 향후 10년은 기술이다. 1) 성숙기에 도달하며 수익성이 중요해졌고, 2) 중동 화공플랜트 시장에 일본의 재진입이 예상되며, 3) 인프라에서 중국의 진출속도가 놀랍기 때문이다. 호황기에는 모든 EPC 업체가 상승 추세지만 불황기에 접어들면 차별화는 가속화된다. 올해 글로벌 EPC 업체에 투자한다면 화공플랜트 섹터에서는 일본, 인프라에서는 중국, 발전과 LNG 다운스트림에서는 한국 업체가 유망하다.

■ 화공플랜트와 LNG 업스트림에서는 일본을, 인프라에서는 중국을 사자

글로벌 화공플랜트 섹터의 경우 작년에는 공격적 수주 전략을 펼쳤던 유럽의 2nd tier가 투자 유망했다. 올해는 일본의 JGC나 치요다가 매력적이다. JGC의 수익성은 글로벌 peer중 가장 높고 PER은 자국 대비 19% 싸다. 최근 일본의 실적 호조는 환율보다 신상품 역할이 컸지만 지난 3년간 LNG로 번 수익과 추가적인 엔저 진행을 감안할 때 중동 화공플랜트 시장에 재진입이 예상된다. 인프라에서는 대형 내수시장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금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미국까지 이미 진출한 ‘CCCC’나 ‘CSCEC’ 등 중국업체가 단연 투자 유망하다. 화공플랜트나 인프라 발주시장이 과거와 같은 호황을 재현하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 한국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발전과 LNG 다운스트림에서는 한국이 유망하다

한국의 강점은 과거 화공플랜트에서 발전과 LNG 다운스트림으로 옮겨가고 있다. 세계 발전시장은 6천억달러, oil&gas는 4,800억달러, 교통인프라는 3천억달러 규모다. 발전에서는 발주처가 선호하는 일본산 기자재와 풍부한 자금을 이용한 일본과의 파트너십으로 엔저의 긍정적 효과가 가능하다. 이를 잘 이용한 업체가 대림산업이다. LNG에서 한국은 LNG 도입 세계 2위의 국가 특성상 다수의 터미널을 수주한 강점이 있다. 삼성물산은 ‘웨소’ 인수로 진출지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불황기에는 글로벌 peer 대비 강점이 뚜렷하고 가격 메리트가 높은 EPC 업체에 제한된 접근이 필요하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을 top picks로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K C&C(034730)

매수(신규)
목표가: 120,000원
종가(5/2): 93,600원

성장은 지속된다

■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20,000원으로 커버리지 시작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가격 120,000원(SOTP 기준, 영업주주사 성격을 고려해 유가증권에는 20% 할인율 적용)을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시작한다. 동사 주가는 지난 2011년 166,000원을 고점으로 대기업 SI의 공공수주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으로 93,600원까지 하락했다. 우리는 부정적 요인들은 상당부분 주가에 반영되었으며, 비그룹사 물량 확대를 통한 이익성장 지속, 적극적인 M&A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할 시점으로 판단한다.

■ 비그룹사 물량 확대를 통한 성장 지속

지난 4월 SK그룹은 계열사로의 수주물량 축소를 발표했는데, 향후 그룹사로부터의 수주보다는 금융, 제조, 글로벌 등 비그룹사 물량 확대, 엔카합병 및 모바일커머스 등 신규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2013년과 2014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11%, 12%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연간 2천억원을 상회하는 건조한 현금흐름 창출능력을 바탕으로 IFRS 회계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통해 솔루션 확보, 글로벌 거점 확대 등을 위한 M&A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건조한 1분기 실적

엔카, 해외사업 등 신규 사업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 14% 증가한 5,078억원과 389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건조한 실적 흐름은 2분기에도 지속되어 성장성 둔화라는 시장 우려는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1A	1,702	176	639	438	9,226	41.4	214	12.7	30.2	2.4	21.6
2012A	2,242	201	475	356	7,642	(17.2)	249	13.5	23.2	1.9	15.8
2013F	2,331	222	541	404	8,881	16.2	272	9.9	18.0	1.5	16.8
2014F	2,458	248	670	500	11,000	23.8	301	8.0	15.6	1.3	17.9
2015F	2,636	282	725	542	11,907	8.2	339	7.4	13.2	1.1	16.7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K텔레콤(017670)

매수(유지)

목표가: 255,000원(상향)

종가(5/2): 204,500원

LTE 성장성, 마케팅경쟁 완화, 자회사 실적 호전의 3박자

■ What's new : 1분기 수익성은 예상 수준

1분기 수익성은 대체로 우리의 예상치 수준이었다. 매출액은 예상수준이었으며 영업이익은 4,106억원으로 우리의 추정치(4,285억원)와 비슷했다. 매출액이 계절적 요인(영업일수, 영업정지)으로 전분기 대비 2.0% 줄었으며 영업이익도 마케팅비용 증가로 24.6% 감소했다. 영업 정지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해 마케팅비용이 20.2% 증가했다. 일회적 매각차익이 4분기 4,263억원(포스코 지분 및 건물)에서 13년 1분기에 1,400억원(Sky Property)으로 줄어 순이익도 32.3% 감소했다.

■ Positives : 통신사업 수익 호전에 자회사 수익도 호전

2분기 이후 LTE 효과와 기업사업(B2B) 호조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LTE 가입자수가 12년 12월 753만명(비중 28.0%)에서 3월 733만명(34.5%)으로 늘었으며 12월에는 1,500만명(55.0%)으로 증가할 것이다. 4분기 ARPU는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할 전망이다. 2분기부터 수익성이 대폭 호전될 전망이다. 3월 중순 이후 보조금 규제 정책으로 가입자 유치경쟁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갤럭시S4 출시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완화돼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4.4% 증가할 전망이다. 매출 호조와 마케팅비용 절감으로 13년, 14년 영업이익을 각각 4.7%, 6.9% 높이고 SK하이닉스의 수익호전으로 순이익을 18.6%, 27.5% 상향 조정한다. 지분법손익은 12년 243억원 적자에서 5,034억원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 Negatives : 계절적 영향으로 1분기 ARPU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더딤

타사는 1분기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전분기 대비 증가한 반면 동사는 0.3% 감소했다. 2G 가입자(480만명, 비중 18%) 등이 계절적 요인에 영향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11년 1분기 -3.0%, 12년 1분기 -1.3% 감소에 비해 축소되는 추세다. 2분기에는 3% 증가할 것이다.

■ 결론 : 목표주가를 255,000원으로 상향 조정

매수의견을 유지하며 수익 상향으로 목표주가를 220,000원에서 255,000원으로 높인다. 지분법 이익기여도가 커져 SOTP 방식으로 목표주가를 추정했다.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조정이익 기준 적정주가 217,837원(PER 9.7배 적용)과 SK하이닉스의 주당 지분가치 37,041원(40% 할인)을 더해 산정했다. 목표주가를 적용한 13년, 14년 PER은 각각 8.9배, 7.3배다. 매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위주로 성장성이 높아지고 보조금 경쟁이 줄어 마케팅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2) 통신사업과 비통신 사업의 수익이 동시에 호전될 전망이다. 3) 최근 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2MF PER이 6.7배로 낮아 저평가됐다. 배당수익률은 4.6%에 달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4,133.6	4,112.6	(0.5)	4,191.2	(2.0)	3.6	17,372.4	17,312.6
영업이익	428.5	410.6	(4.2)	442.0	(24.6)	(17.8)	2,224.1	2,117.9
영업이익률(%)	10.4	10.0	(0.4)	10.5	NM	NM	12.8	12.2
세전이익	528.0	427.9	(19.0)	NA	(34.2)	8.4	2,424.7	NA
순이익	402.7	354.2	(12.0)	357.3	(32.3)	15.6	1,996.5	1,622.1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스카이라이프(053210)

중립(하향)

종가 (5/2): 41,050원

투자의견 하향하나 하반기 신규 서비스에 주목해야

■ What's new: 가입자 및 플랫폼 매출액 증가로 분기 사상 최대 이익 달성

KT스카이라이프(스카이라이프)의 1분기 매출액은 1,48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2.1% 증가했다. 3월부터 시작된 KT와의 통합 광고영업과 홈쇼핑송출수수료 증가에 따라 플랫폼 매출액이 55% 증가했고, 1분기 가입자가 11.2만명 순증함에 따라 서비스 매출액이 11% 증가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은 31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 증가해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액이 호조를 보였고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수수료, 용역비 등 비용 통제가 잘 돼 영업 이익률도 21.3%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Positives: 플랫폼 경쟁력 강화

스카이라이프의 13년 순증 가입자는 57만명(회사 가이던스 55만명), 누적 가입자는 436만명으로 예상된다. 확대되는 가입자 기반을 바탕으로 플랫폼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높은 채널 경쟁력을 바탕으로 KT와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OTS 중심의 가입자 모집이 가속화돼 공동주택 침투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다. 플랫폼 매출액 중 광고수익은 KT와의 통합 영업을 통해 크게 늘어나고, 13년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도 전년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Negatives: 가입자당 매출액 감소, 해지율 상승

스카이라이프의 1분기 평균 가입자당 방송서비스 매출액(ARPU)은 8,289원으로 전분기 및 전년동기 대비 각각 4.9%, 2.9%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ARPU가 낮은 OTS 가입자 비중이 1분기에 48.9%(4분기 46.8%)까지 상승했고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ARPU를 높이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카이라이프는 13년 하반기에 클라우드 기반의 위성방송 PVR(Personal video recorder) 서비스인 SoD(Satellite on demand)를 위성 단독 상품 가입자에 제공할 계획이다. 실적 개선 효과와 함께 가입자 기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아직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로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 11년 4분기 이후 해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지켜 봐야 한다(해지율은 11년 4분기 0.80%에서 13년 1분기 0.87%으로 상승).

■ 단기 목표가 도달, 투자의견 중립 하향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있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 모델은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한다. 종전 목표주가는 40,000원이었다. 클라우드 PVR 서비스(SoD)를 비롯한 신규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은 아직 추정치에 반영하지 않았다. 우리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세부안 발표, 홈쇼핑송출수수료 협상 완료 이후 추가적인 실적 조정을 하고 투자의견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할 계획이다.

(단위: 십억원, %, %p)

	1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59	149	(6.3)	152	(7.6)	22.1	673	651
영업이익	30	32	6.7	29	99.9	74.1	120	125
영업이익률(%)	18.9	21.5	2.6	19.1	NM	NM	17.8	19.2
세전이익	31	33	6.5	31	118.0	66.2	125	130
순이익	24	26	8.3	23	122.6	77.8	96	99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에이치씨엔(126560)

중립(유지)

종가 (5/2): 5,800원

실적 개선 추세 지속, 그러나 두 가지 불안한 요소 존재

■ What's new: 시장 추정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

현대HCN(HCN)의 1분기 매출액은 71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1) 방송 매출액이 3.9% 증가했고, 2)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을 포함한 플랫폼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36.7% 증가했고, 3)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마케팅비용 증가, 지상파 재송신 대가 지급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5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7% 증가했다. 우리 예상치인 151억원에 부합하는 실적이다.

■ Positives: 결합상품 가입자 및 플랫폼 매출 증가

1분기 HCN의 방송 가입자는 포항방송 가입자가 포함돼 전분기 대비 12.4만명 늘었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가입자 증가로 전체 가입자는 13.9만명 증가했다. 최근 HCN은 결합상품 요금을 낮추면서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포항방송 가입자 인수, 가입자 결합률 상승으로 13년 전체 가입자는 전년 대비 8.3%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HCN의 1분기 플랫폼 매출액이 전년 대비 36.7% 증가했으며 13년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은 15%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영업이익의 기여도가 매우 높아 HCN의 안정적 실적을 이끌 전망이다.

■ Negatives: 방송 가입자 감소,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에 따른 소급분 지급 지출

HCN은 요금 할인, 현금 마케팅 등을 통해 방송 가입자 이탈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M&A를 제외하면 가입자는 감소하고 있다. 포항방송 가입자를 제외한 1분기 방송 가입자는 전분기 대비 1천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HCN은 추가적인 M&A를 검토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높고, 서초구에서 경쟁하고 있는 씨앤엠 서초방송 인수도 단기간 안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 가입자 정체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4월 지상파 방송사와 디지털 가입자(09년 7월 이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 월 28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재송신 협상을 완료한 이후 관련 비용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분기부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HCN은 12년까지 재송신 대가 관련 50억원의 충당금을 설정했다.

■ Valuation 매력 충분하지만 가입자 규모가 확대되어야

HCN의 13년 예상 PER은 11.2배로 미디어업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상파 재송신 소급분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PP(Program provider) 현대미디어 운영 등 부가사업 실적 개선, 플랫폼 매출액 증가 등으로 13년 영업이익이 2.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포인트가 분명하지만 추가적인 M&A가 늦어지고 있고 경쟁 심화에 따른 요금 할인 및 현금 마케팅 강화로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의견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71.7	71.2	(0.7)	72.2	(0.1)	12.4	305.1	305.1
영업이익	15.1	15.5	2.9	14.9	1.0	15.7	66.9	72.7
영업이익률(%)	21.0	21.8	0.8	20.6	NA	NA	21.9	23.8
세전이익	16.1	18.8	16.6	NA	6.5	29.1	74.8	NA
순이익	13.2	14.6	10.7	12.7	7.5	27.8	54.7	59.3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제일제당(097950)

매수(유지)
목표가: 390,000원(유지)
종가(5/2): 318,000원

인내의 시간

■ What's new : 영업이익, 순이익 20.9%, 54.5% 감소해 예상 하회

CJ제일제당의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0.9% 감소해 우리의 예상을 5.9%, 컨센서스를 22.7% 하회했다. 가공식품 실적은 경기 영향에 따른 판매 위축으로, 해외 바이오 실적은 라이신가격 하락으로 기대보다 부진했다. 영업외수지는 기말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해외 법인의 유로화 매출채권 관련한 외화관련 손실이 211억원 발생했고, 곡물과생상품손실이 57억원 발생해 악화됐다. 순이익은 54.5% 감소해 예상을 29.8%, 컨센서스를 49.6% 하회했다.

■ Positives : 소재식품 수익성 개선, 해외 사료 매출액 성장 지속

소재식품의 매출총이익률은 전년동기 15.9%에서 18.1%로 개선됐다. 밀가루 가격 인상과 곡물재료비 안정이 이유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개선된 2.6%에 그쳤다. 가격 인상 초기의 판촉비 부담 때문이며, 이는 2분기 이후 줄어들 부분으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료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축산 계절화가 강화되며 전체적으로 25.3% 고성장했다.

■ Negatives : 가공식품 수익성 악화, 라이신 가격 하락

고성장을 이어가던 가공식품 매출액(과거 3년 CAGR +15.1%)은 경기 침체 및 대형 마트 의무 휴무제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에 그쳤고, 영업이익률도 7.5%에서 5.4%로 하락했다. 우리는 동사의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경쟁사대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변수로 인한 악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한다. 바이오 영업이익은 증설에도 불구하고 라이신가격이 1,960달러/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4.8% 하락해 3.4% 미증했다. 라이신가격은 동사 중국 법인의 증설 외 Global Bio-chem의 재고 물량 부담, 중국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약세 원인이다.

■ 결론 : 비용 제어 효과 지켜볼 필요

SOTP로 산출한 목표주가 390,000원을 유지한다. 식품 영업가치는 가공식품의 성장 저하를 반영해 하향(DCF로 평가)했지만 해외 사료가 올라간 Peer의 주가 지표를 반영해 상향되었다. 가공식품은 경기 부침이 심해졌지만 저수익 제품 축소 노력으로 수익성 개선 여력이 있고, 해외 바이오 역시 현재까지는 가격 약세가 판매량 증가 및 원가 개선으로 만회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이익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전문야에 걸쳐 비용 절감이 추진되는 만큼 이익의 감소 폭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본다. 다만 우리는 라이신 2013년 평균 판매가격을 1,850달러/톤으로 가정하는데 Evonik 등 경쟁사의 증설 물량으로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장기 성장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바이오의 가치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단위: 십억원, %, %p)

	1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512.1	2,448.4	(2.5)	2,615.2	1.1	3.2	11,069.4	10,925.5
영업이익	133.1	125.2	(5.9)	162.1	(2.1)	(20.9)	688.8	696.6
영업이익률(%)	5.3	5.1	-0.2%p	6.2			6.2	6.4
세전이익	100.2	65.5	(34.7)	123.7	(11.5)	(51.0)	567.4	552.6
순이익	66.6	46.8	(29.8)	92.7	(12.0)	(54.5)	372.8	402.1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고려아연(010130)

매수(유지)
목표가: 430,000원(하향)
종가(5/2): 324,000원

단기는 이익 증가, 장기는 생산 능력 확대에 주목

■ What's new : 1분기, 수익성 향상이 돋보인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우리 예상을 15% 하회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개별기준과 연결기준 각각 16.8%와 14.7%로 우리 예상(각각 15.1%와 14.2%)과 컨센서스(각각 14.1%와 13.5%)를 모두 상회했다. 연 제련 설비를 보수함에 따라 연결 매출액이 우리 추정과 컨센서스를 각각 17.8%와 12.2% 하회한 것이 영업이익 하회의 원인이다. 영업이익률이 상회한 것은 1) 아연과 연 가격이 각각 6.4%와 7.4% 올랐고, 2)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금과 은 가격은 전분기대비 각각 4.4%와 5.8% 하락했다. 고려아연의 수익성은 귀금속보다 비철 가격,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 Positives :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덕에 2분기 영업이익 증가할 것

우리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귀금속과 비철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2,080억원으로 1분기대비 2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원/달러 환율 변동에 있다. 2009년 이후 고려아연의 영업이익률은 금속 가격의 변동보다 원/달러 환율 변동에 의해 변동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고려아연 매출원가의 90%를 차지하는 정광은 현재보다 5개월 전 환율이 적용되지만 판매하는 금속은 현재 환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가는 낮은 환율이 적용되나 판가는 높은 환율이 적용되어 환율 차이만큼 부가적인 이익이 발생한다. 2분기는 원가보다 판가에 적용되는 원/달러 환율이 더 높다.

■ Negatives : 금속 가격 전망 하향으로 실적 전망도 하향

최근 귀금속과 비철 가격 하락을 반영해 우리 금속 가격 전망을 하향했다. 2013년 평균 가격을 기존 전망대비 금과 은은 각각 8.6%와 10.4%, 아연과 연은 각각 1.2%와 7.1% 하향했다. 그 결과 2013년과 2014년 영업이익이 각각 17.7%와 10.2% 하락했다. 귀금속 가격은 안정세를 찾고 있으나 보수적인 전망을 위해 금과 은 가격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했다.

■ 결론 : 목표주가 하향, 그러나 성장주라는 기존 시각 유지

실적 전망을 변경함에 따라 12개월 forward EPS가 44,581원에서 36,023원으로 19% 하락했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목표 PER 12배)도 430,000원으로 19% 하향한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성장주로 재평가될 것이라는 우리의 시각은 변함없다. 투자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현 주가대비 33%의 상승 여력이 있다.

(단위: 십억원, %, %p)

	1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427	1,172	(17.8)	1,334	(17.0)	(12.3)	5,911	5,450
영업이익	203	173	(15.0)	181	7.1	(17.9)	937	785
영업이익률(%)	14.2	14.7	+0.5%p	13.6	NM	NM	15.9	14.4
세전이익	218	173	(20.9)	189	(0.8)	(24.6)	994	838
순이익	166	128	(22.9)	144	(8.3)	(25.2)	755	639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넥센타이어(002350)

매수(유지)
목표가: 19,000원(유지)
종가(5/2): 14,950원

불황 속 나홀로 성장

■ What's new: 수요부진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액 QoQ, YoY 모두 증가

넥센타이어의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4,329억원(QoQ +5.2%, YoY +6.0%)으로 우리 추정치를 2.3%, 컨센서스를 3.3% 하회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477억원(QoQ +96.2%, YoY -3.6%)으로 우리 추정치를 4.4%, 컨센서스를 3.2% 상회했다. 이는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상보다 원재료 가격 하락이 더 컸기 때문이다.

■ Positives: 불황에도 돋보이는 매출 성장

넥센타이어의 가장 큰 투자포인트인 외형성장이 돋보인 1분기 실적이었다. 실적을 발표한 경쟁사들은 수요부진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는 가운데(미첼린 -8%, 굿이어 -11%, 한국 -2%) 넥센타이어는 창녕공장 물량 확대에 힘입어 YoY +7%, QoQ +5%의 성장을 달성했다. 1분기에 북미 RE시장은 경쟁심화로 인센티브가 증가 하면서 부진했지만 우리 전망대로 2분기에 북미시장의 경쟁강도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회복 될 경우 북미시장 비중이 크고 선제적으로 생산설비를 늘린 넥센타이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 Negatives: 고인치 타이어 수요부진으로 평균가격 하락

1분기 평균가격이 하락한 주 원인은 20인치 이상의 고인치 타이어의 수요부진이다. 중국에서 북미지역으로 수출하는 타이어의 평균단가가 내려가면서 중국공장의 평균가격을 9% 낮추고, 북미지역의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 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인치, 고사양 타이어 수요부진의 여파는 넥센타이어보다 1st와 2nd tier 업체에 더 크다. 경제적이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타이어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넥센타이어에는 유리하다.

■ 결론: 높은 성장성 재확인, OE 납품처 확대 소식이 이어질 것

장기적으로 넥센타이어 양산공장은 해외 RE수요를 전담하고 창녕공장은 해외 OE수요를 겨냥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는 현재 90%에 달하는 현대기아차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OE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신규 OE납품처 발굴에 매진 할 것이다. 우리는 하반기부터 신규 OE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창녕공장 증설물량 소화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성장성이 재 부각될 것으로 전망한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9,000원(업종평균 PER 10배에 성장성을 감안하여 10% 할증)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443	433	(2.3)	448	5.2	6.0	1,986	1,904
영업이익	46	48	4.4	46	96.2	(3.6)	235	199
영업이익률(%)	10.3	11.0		10.3	5.1%p	(1.1%p)	11.8	10.4
세전이익	41	42	4.1	-	225.6	(14.6)	215	-
순이익	32	-		32			168	137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동아에스티(170900)

매수(유지)
목표가: 235,000원(하향)
종가(5/2): 148,500원

약재 연속, 그러나 신약/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견고

■ What's new : 분할 관련 일회성 비용 집행으로 영업이익 감소

분할 이전 기준 1분기 매출은 2,156억원(-1.4% YoY), 영업이익은 127억원(OPM 5.9%, -9.9% YoY)을 시현했다. 당사와 시장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다. 1) 리베이트 수사로 인한 마케팅 위축과 2) 분할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10일) 등으로 전문의약품이 전년대비 8.4% 감소했다.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하회한 이유는 분할 관련 일회성 비용 증가(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이사비용 등) 때문이다. 동아에스티 단독 1분기 매출은 1,469억원, 영업이익은 145억원(OPM 9.9%)을 시현했다. 매출정체에도 불구하고 영업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1) 박카스 분할로 인한 광고비 부담 감소와 2) 홀딩스와의 R&D 비용 공동부담 때문이다.

■ Positives : 견고한 수출/신약 모멘텀 재확인, 유럽 의사들 DA 7218 높은 관심 표명

약재 속에서도 동사의 장기 re-rating을 견인할 수출과 신약 파이프라인 모멘텀은 견고하다. 수출(285억원)은 전년대비 32% 성장했다. 기존 제품 성장스토리에 신제품/신시장 개척 효과가 더해져, 2013년 내내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박카스 수출(86억원, 72% YoY) 또한 전년도 높은 기저에도 고성장을 지속했다. 한편, DA7218(슈퍼박테리아 항생제, 3월 미국 임상3상 완료) 관련 최근 베를린 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존에 자이복스나 다른 제네릭 항생제 처방을 하던 의사들 평균 31%(자이복스: 48%, 제네릭: 24%)가 유효성/편의성이 뛰어난 DA7218로의 처방전환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글로벌 상업화 성공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 Negatives : 세금추징으로 2013년 당기 순이익 적자 불가피, 약재 상당부분 주가 반영

정기세무감사에 따른 세금추징금액이 646억원으로 결정되었다. 동사가 자진신고한 법인세 수정신고금액(196억원)을 포함해 총 843억원의 추가세금을 내야한다. 동사의 보유현금(2,000억원)으로 세금납부할 예정이며, 1분기 회계에 반영될 것이다. 2013년 순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 세금 추징 약재 관련 지난주 주가하락(7.7%)에 상당부분 반영되었으나, 추징금액이 기존 예상(500억원)보다 크므로, 추가적인 단기 주가하락이 있을 수 있다.

■ 결론 : 목표주가 하향하나 신약/수출 모멘텀 고려하여 주가 조정 이후 저가 매수 권고

목표주가를 266,000원에서 235,000원(DCF가치와 신약가치 등 합산, 세금추징을 제외한 2013년 EPS 기준으로 29배)으로 11.7% 하향한다. 회사의 실적개이던스 하향(리베이트 수사 관련 상반기 마케팅 위축)에 따라 2013~2014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평균 8.5% 하향하고, 세금추징에 따른 순부채 증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사의 re-rating을 견인할 수출/신약 모멘텀은 견고하고, 하반기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세금추징 약재 관련 주가하락이 일단락되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단위: 십억원, %, %p)

	1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28	216	(5.3)	236	(3.2)	(1.4)	668	726
영업이익	22	13	(43.4)	22	(53.7)	(9.9)	77	90
영업이익률(%)	9.9	5.9		9			11.5	12.3
세전이익	20	NA	NA	20	NM	NM	72	98
순이익	16	NA	NA	16	NM	NM	(27)	68

주: 1Q13P 실적은 분할 이전 기준, 2013F 추정치 및 컨센서스는 분할 이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중립(유지)

종가(5/2): 12,650원

바닥 다지기

■ What's new : 기대치에 부합하는 1분기 실적

1분기 매출액은 1조 7,893억원(-18.3% YoY), 영업이익 572억원(-68.9% YoY)를 기록하며 시장과 우리의 기대치에 부합했다. 전년도 춘절이 1월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올해는 2월에 춘절연휴가 있었다. 이에 따른 성수기 이연효과와 공작기계부문 실적 부진으로 전년대비 실적이 부진했다.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1.4%대비 4.6%p 개선된 3.2%를 기록하여 흑자 전환했다. 매출액이 전분기와 유사했음에도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된 이유는 춘절 이후 성수기 효과로 3월 굴삭기 판매가 증가했고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감소했다. 순이익은 금융비용 731억원, 외환 수지 -278억원 등이 반영되어 지배주주순이익은 66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 Positives : 중국 굴삭기 시장 바닥 근접. 양지판매 효과로 DICC 실적 개선 기대

두산인프라코어의 4월 굴삭기 판매는 춘절 성수기 효과로 1,330대(+8.6% YoY)를 판매하여 25개월만에 양(+)의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 굴삭기 시장은 2011년 3월 이후 지속적인 역성장을 기록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중국 시장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대수를 판매하더라도 회계적인 매출과 이익은 15% 가량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판매량의 일부가 딜러가 보유한 재고에서 소진되었기 때문에 매출 손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Negatives : Cash cow 공작기계 실적 부진

Cash cow인 공작기계부문의 영업이익은 1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4.3% 감소했다. 북미시장 수주 감소로 작년 4분기 월평균 수주금액이 800억 내외로 부진했고 일본업체들과의 경쟁으로 프로모션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업체와의 경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수익성 회복은 힘들어 보인다. 단, 3월, 4월 수주는 1,078대, 1,100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QoQ로 개선될 전망이다.

■ 결론 : 2분기 실적 개선 바탕으로 주가 반등 가능

중국 성수기 효과, 공작기계 수주개선으로 2분기 영업이익은 1,502억원을 기록하며 1분기 대비 162.6%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단기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작기계부문 수익성 개선, 중국 굴삭기 시장 회복, G2엔진 탑재율 증가로 인한 DII 수익성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십억원, %, %p)

	1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915	1,789	(6.6)	1,970	0.7	(18.3)	7,796	8,469
영업이익	51	57	11.2	58	흑전	(68.9)	395	401
영업이익률(%)	2.7	3.2	0.5	2.9	4.6	(5.2)	5.1	4.7
세전이익	(14)	(85)	NM	NA	적전	적전	150	NA
순이익	(10)	(66)	NM	(18)	적전	적전	107	86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4/25(목)	04/26(금)	04/29(월)	04/30(화)	05/02(목)	05/03(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51.60	1,944.56	1,940.70	1,963.95	1,957.21	1,965.71	
	등락폭	16.29	-7.04	-3.86	23.25	-6.74	8.50	
	등락종목	상승(상한)	441(2)	428(4)	376(6)	505(4)	318(5)	500(2)
		하락(하한)	374(0)	369(0)	428(3)	290(4)	486(1)	302(0)
	ADR	98.55	96.30	97.67	102.81	100.88	108.48	
	이격도	10 일	101.49	101.02	100.71	101.70	101.17	101.27
		20 일	100.57	100.36	100.31	101.57	101.29	101.71
	투자심리	60	60	60	60	50	60	
	거래량 (백만 주)	335	280	266	403	350	307	
	거래대금 (십억 원)	4,598	4,068	3,648	4,975	4,181	4,125	
코스닥	코스닥지수	559.40	565.35	568.36	563.87	560.48	565.33	
	등락폭	-4.41	5.95	3.01	-4.49	-3.39	4.85	
	등락종목	상승(상한)	441(12)	428(9)	376(10)	505(9)	318(14)	595(10)
		하락(하한)	374(7)	369(0)	428(1)	290(4)	486(4)	324(0)
	ADR	97.98	98.55	100.61	102.21	101.23	109.19	
	이격도	10 일	101.05	101.79	102.07	101.17	100.53	101.14
		20 일	101.76	102.75	103.16	102.24	101.60	102.39
	투자심리	60	60	60	60	50	60	
	거래량 (백만 주)	547	490	442	506	454	472	
	거래대금 (십억 원)	2,958	2,532	2,429	2,704	2,317	2,241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033.3	962.1	1,118.5	182.8	178.1	327.5	69.4	31.2	329.477	33.9
	매도	2,124.4	993.1	989.1	200.1	141.5	295.4	61.4	26.4	264.2	41.2
	순매수	-91.1	-31.0	129.4	-17.3	36.6	32.1	8.0	4.7	65.3	-7.3
	5월 누계	47.2	-118.1	96.2	-54.6	40.9	6.2	13.4	5.9	84.4	-25.3
	13년 누계	1,119.6	-5,873.6	5,199.4	1,726.7	679.1	-1,414.7	168.7	94.9	3,944.7	-445.4
코스닥	매수	2,033.1	120.4	91.2	17.8	13.0	29.3	4.8	3.3	22.9	14.8
	매도	2,040.6	89.4	108.9	22.2	9.8	32.3	5.2	2.0	37.5	20.6
	순매수	-7.5	31.0	-17.7	-4.3	3.3	-3.0	-0.4	1.3	-14.6	-5.8
	5월 누계	82.8	7.3	-74.8	-12.2	-0.5	-26.2	-9.4	-0.8	-25.7	-15.3
	13년 누계	-1,407.7	725.8	1,028.3	70.1	52.9	361.6	-75.1	-12.4	642.0	-346.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전기,전자	29,013	서비스업	-16,960
운수장비	17,393	금융업	-14,297
유통업	7,394	음식료품	-11,315
SK하이닉스	23,609	SK이노베이션	-10,931
기아차	18,770	삼성중공업	-7,791
현대모비스	9,576	CJ제일제당	-7,672
삼성전기	9,553	우리금융	-6,704
엔씨소프트	9,452	TIGER 200	-6,133

은행		보험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운수장비	5,125	통신업	-3,704
증권	1,594	전기,전자	-3,393
유통업	1,435	보험	-848
기아차	2,081	KT	-2,450
현대차	1,454	삼성전기	-2,407
LG화학	1,207	KODEX 인버스	-1,635
하나금융지주	1,041	KODEX 레버리지	-1,017
미래에셋증권	934	NHN	-986

(체결기준: 백만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운수장비	49,632	음식료품	-36,171
통신업	30,539	금융업	-32,184
철강및금속	13,354	서비스업	-24,065
기아차	25,168	우리금융	-18,468
KT	21,690	CJ제일제당	-15,035
고려아연	16,392	LG디스플레이	-11,591
현대모비스	10,252	SK이노베이션	-10,946
현대차	9,944	오리온	-10,855
		KB금융	-10,133
		NHN	-9,892
		코스맥스	-9,883
		LG유플러스	-9,177
		한국가스공사	-9,118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운수장비	20,182	금융업	-18,180
통신업	6,016	화학	-12,574
전기가스업	5,760	보험	-10,767
KODEX 인버스	18,074	LG전자	-54,735
기아차	10,607	SK하이닉스	-21,340
삼성전자	10,525	하나금융지주	-16,811
KT	5,795	한국전력	-9,662
한국전력	5,466	TIGER 200	-2,848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운수장비	106,627	금융업	-18,180
통신업	34,320	화학	-12,574
전기,전자	23,482	보험	-10,767
기아차	73,547	LG전자	-54,735
KT	42,545	SK하이닉스	-21,340
SK하이닉스	26,011	하나금융지주	-16,811
현대모비스	21,251	한국전력	-9,662
KODEX 레버리지	17,723	대림산업	-8,423
삼성전기	16,726	현대위아	-6,189
제일모직	13,775	S-Oil	-5,828
엔씨소프트	13,334	신한지주	-5,709
현대위아	13,175	LG화학	-5,620
한국전력	8,483	엔씨소프트	-5,590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운수장비	28,188	금융업	-18,180
철강및금속	13,691	화학	-12,574
의약품	7,801	보험	-10,767
삼성전자	52,944	LG전자	-54,735
현대차	21,826	SK하이닉스	-21,340
POSCO	11,712	하나금융지주	-16,811
오리온	8,622	한국전력	-9,662
기아차	8,477	대림산업	-8,423
SK텔레콤	7,574	현대위아	-6,189
고려아연	7,138	S-Oil	-5,828
KODEX 200	7,116	신한지주	-5,709
삼성전자우	6,543	LG화학	-5,620
SK이노베이션	6,016	엔씨소프트	-5,59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1,160	섬유,의류	-1,735
오락,문화	1,099	출판,매체복제	-1,524
소프트웨어	698	화학	-899
KH바텍	1,769	웰크론	-1,735
하나투어	1,265	에스엠	-1,505
KG모빌리언스	1,125	컴투스	-1,500
파라다이스	1,073	모두투어	-1,236
위메이드	1,027	KG이니시스	-999

연		기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645	IT부품	-3,011
금속	1,422	제약	-2,856
도매	1,000	의료,정밀기기	-2,078
성광벤드	1,387	서울반도체	-2,674
에이블씨엔씨	1,386	오스템임플란트	-2,275
GS홈쇼핑	993	컴투스	-1,873
삼천리자전거	830	파라다이스	-1,728
이오테크닉스	798	이녹스	-1,220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652	전문기술	-741
기계,장비	461	디지털컨텐츠	-366
소프트웨어	335	사업지원	-199
에스엠	652	CJ E&M	-774
에스맥	333	컴투스	-344
제이브이엠	220	하나투어	-172
파라다이스	194	알에프텍	-145
유니크	135	옵트론텍	-8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1,125	방송서비스	-744
출판,매체복제	881	디지털컨텐츠	-620
금속	744	오락,문화	-587
KG모빌리언스	956	컴투스	-1,014
조이맥스	922	GS홈쇼핑	-1,013
에스엠	875	게임빌	-670
덕산하이메탈	404	에스텍파마	-605
살리콘웍스	399	파라다이스	-587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금속	2,363	디지털컨텐츠	-5,582
도매	2,296	제약	-4,077
소프트웨어	1,534	기계,장비	-1,892
KG모빌리언스	3,447	컴투스	-5,475
성광벤드	2,369	서울반도체	-3,002
KH바텍	2,132	메디톡스	-2,647
에이블씨엔씨	1,926	오스템임플란트	-2,423
하나투어	1,529	KG이니시스	-1,957
옵트론텍	1,495	우리산업	-1,893
삼천리자전거	1,405	웰크론	-1,735
덕산하이메탈	1,314	이엠텍	-1,584
바텍	1,205	루멘스	-1,378
하이텍팜	1,101	씨젠	-1,303

외		국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12,151	출판,매체복제	-5,141
반도체	9,642	디지털컨텐츠	-1,941
음식료,담배	2,864	통신장비	-1,216
셀트리온	5,085	에스엠	-5,071
메디톡스	3,429	컴투스	-1,585
덕산하이메탈	2,978	KH바텍	-1,528
매일유업	2,615	홈캐스트	-1,262
제일바이오	2,106	이엘케이	-1,253
GS홈쇼핑	1,717	안랩	-1,032
에스맥	1,618	포스코 ICT	-1,003
파트론	1,543	이엠텍	-986
슈프리마	1,447	우리기술	-792
인터파크	1,440	에이블씨엔씨	-717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양사	20 일	녹십자	18 일
코오롱	13 일	대한제분	16 일
현대글로벌비스	12 일	현대엘리베이	11 일
화신	11 일	한라공조	10 일
삼성전자	9 일	일진디스플레이	10 일
삼성생명	9 일	코오롱인더	9 일
한전기술	9 일	삼성화재	8 일
금호석유	8 일	삼성테크윈	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94 일	현진소재	9 일
크레듀	10 일	인터파크	6 일
심텍	8 일	성광벤드	5 일
SK브로드밴드	7 일	SK브로드밴드	5 일
테크노세미켄	6 일	포스코켄텍	3 일
이오테크닉스	6 일	하이록코리아	3 일
서부T&D	5 일	태산엘시디	3 일
씨젠	5 일	심텍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236,241	KODEX 200	101,864
기아차	186,904	LG유플러스	63,268
KODEX 레버리지	169,139	기아차	50,840
KT	114,715	LG디스플레이	32,289
현대차	97,686	삼성화재	24,893
세아제강	59,051	KB금융	19,639
삼성생명	47,738	삼성전기	19,427
한국전력	45,780	삼성전자	19,126

KOSDAQ			
기	관	외	국 인
SK브로드밴드	15,704	셀트리온	5,920
KG모빌리언스	5,230	GS홈쇼핑	5,312
KH바텍	4,431	인터파크	5,217
원스테크넷	3,816	다음	4,547
이지바이오	3,801	성광벤드	4,055
마크로젠	3,706	안랩	3,946
하이텍팜	3,440	바이오랜드	3,849
동원개발	3,385	서울반도체	3,688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106,627	28,188	134,815
통신업	34,320	4,698	39,018
철강및금속	1,528	13,691	15,219
기아차	73,547	8,477	82,024
삼성전자	4,801	52,944	57,745
현대차	7,861	21,826	29,687
KODEX 레버리지	17,723	2,661	20,383
고려아연	6,360	7,138	13,498
한미약품	6,198	3,306	9,504
SK텔레콤	952	7,574	8,526
만도	2,649	2,823	5,473
현대글로벌비스	3,296	980	4,276
효성	2,127	1,707	3,834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금속	2,363	2,410	4,773
음식료, 담배	1,215	2,864	4,079
도매	2,296	1,063	3,359
셀트리온	151	5,085	5,236
덕산하이메탈	1,314	2,978	4,292
KG모빌리언스	3,447	211	3,658
성광벤드	2,369	1,142	3,511
하나투어	1,529	189	1,719
심텍	705	958	1,663
AP시스템	505	1,149	1,654
슈프리마	9	1,447	1,455
바텍	1,205	3	1,207
하이텍팜	1,101	26	1,12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동부제철	22 일	SKC	20 일
LS	14 일	삼성엔지니어링	13 일
TIGER 모멘텀	14 일	신한지주	8 일
한진중공업홀딩스	13 일	CJ	7 일
일진디스플레이	11 일	현대하이스코	7 일
한라공조	10 일	금호석유	7 일
신도리코	10 일	CJ제일제당	7 일
KODEX 건설	10 일	KT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GS홈쇼핑	13 일	KCC건설	24 일
모두투어	7 일	코미팜	6 일
인터파크	6 일	큐렉소	5 일
STS반도체	6 일	포스코 ICT	4 일
서울반도체	6 일	씨앤케이인터	4 일
SK컴즈	5 일	에스엠	4 일
OCI머티리얼즈	4 일	테라리소스	4 일
매일유업	3 일	주성엔지니어링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200	-101,465	LG전자	-73,334
현대모비스	-91,410	하나금융지주	-57,609
LG디스플레이	-76,051	KT	-53,107
LG전자	-40,109	NHN	-52,814
SK이노베이션	-38,924	신한지주	-50,915
현대건설	-38,784	한국전력	-33,939
우리금융	-32,803	CJ제일제당	-29,757
GS	-30,294	삼성엔지니어링	-27,996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엠	-38,548	에스엠	-16,357
GS홈쇼핑	-11,348	하나투어	-5,655
서울반도체	-9,368	솔브레인	-3,325
농우바이오	-5,484	코미팜	-3,190
CJ E&M	-5,437	우리기술	-2,164
매일유업	-5,394	오스템임플란트	-1,754
JCE	-4,800	동서	-1,752
오스템임플란트	-4,693	파라다이스	-1,626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KOSPI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금융업		-32,184		-18,180		-50,364	
서비스업		-24,065		-10,159		-34,224	
보험		-349		-10,767		-11,116	
CJ제일제당		-15,035		-4,161		-19,196	
하나금융지주		-385		-16,811		-17,195	
한국가스공사		-9,118		-730		-9,848	
신한지주		-3,458		-5,709		-9,167	
GS건설		-4,733		-4,135		-8,868	
삼성엔지니어링		-2,099		-4,212		-6,312	
롯데쇼핑		-2,701		-3,205		-5,907	
대상		-3,818		-1,994		-5,812	
현대해상		-1,458		-2,338		-3,796	
삼성SDI		-1,889		-1,750		-3,639	

종	KOSDAQ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디지털컨텐츠		-5,582		-1,941		-7,523	
섬유,의류		-1,735		-298		-2,033	
통신장비		-174		-1,216		-1,390	
컴투스		-5,475		-1,585		-7,060	
이엠텍		-1,584		-986		-2,570	
웰크론		-1,735		-338		-2,073	
우리산업		-1,893		-58		-1,951	
이엘케이		-209		-1,253		-1,461	
씨젠		-1,303		-36		-1,339	
안랩		-1		-1,032		-1,033	
모베이스		-876		-94		-970	
젬백스		-734		-151		-885	
OCI머티리얼즈		-585		-72		-65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LG전자	537	46,088	
SK텔레콤	77	15,762	
삼성전자	6	9,255	
KODEX 200	355	9,043	
SK이노베이션	59	8,631	
KT	220	8,373	
삼성물산	128	7,497	
오리온	4	5,01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16	3,636	
컴투스	25	1,286	
메디포스트	15	1,250	
게임빌	10	1,046	
씨티씨바이오	30	963	
파트론	33	754	
멜파스	37	663	
CJ E&M	18	641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611	5,517,412
POSCO	8,529	2,678,199
LG전자	16,057	1,366,477
현대차	5,224	1,031,752
OCI	7,386	1,023,004
SK하이닉스	27,977	823,924
NHN	2,593	777,978
현대모비스	2,667	681,30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3,772	421,418
파라다이스	4,756	107,259
서울반도체	3,398	101,262
에이블씨엔씨	1,109	67,517
덕산하이메탈	2,399	65,864
차바이오앤	4,665	61,113
에스엠	1,495	58,679
인터플렉스	1,268	57,571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5,168	은행	-4,764
금융업	2,842	의약품	-1,215
기계	1,258	운수장비	-969
한진해운	5,422	외환은행	-4,711
하나금융지주	2,661	알앤엘바이오	-2,123
대한전선	2,235	SK하이닉스	-1,870
한화생명	993	LG전자	-1,312
SG세계물산	938	삼성중공업	-1,218
대우건설	822	삼성물산	-867
이수페타시스	729	두산건설	-704
중국원양자원	714	기아차	-614
대우조선해양	693	SK네트웍스	-551
신성통상	642	KODEX 200	-54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IT부품	1,530	연구,개발	-77
제약	1,136	환경	-11
전문기술	851	통신서비스	-3
태창파로스	660	STS반도체	-543
리훙쿠첸	614	씨젠	-411
조아제약	582	서울반도체	-366
오스템임플란트	482	룩손에너지	-348
인터파크	436	AP시스템	-290
제주반도체	350	대아티아이	-226
이지바이오	324	크리스탈	-157
시공테크	280	원익IPS	-139
시노펙스	273	차바이오앤	-69
에스엠	270	iMBC	-55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4/26(금)	04/29(월)	04/30(화)	05/02(목)	05/03(금)
외국인	-5,873.6	-118.1	676.0	-116.4	-179.3	31.5	-87.1	-31.0
기관계	5,199.4	96.2	-244.3	79.7	157.5	403.4	-33.2	129.4
(투신)	-1,414.7	6.2	-442.3	36.6	18.6	145.2	-25.9	32.1
(연기금)	2,821.3	78.3	-43.5	-18.9	0.7	29.5	19.9	58.4
(은행)	94.9	5.9	-1.4	2.4	7.2	22.2	1.1	4.7
(보험)	679.1	40.9	28.0	15.1	50.4	146.6	4.3	36.6
개인	1,119.6	47.2	-377.4	41.1	14.5	-356.7	138.3	-91.1
기타	-445.4	-25.3	-54.3	-4.4	7.3	-78.1	-18.1	-7.3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04/25(목)	04/26(금)	04/29(월)	04/30(화)	05/02(목)
KOSPI	2,033.3	1,825.7	1,997.1	1,951.6	1,944.6	1,940.7	1,964.0	1,957.2
고객예탁금	15,249.8	17,680.2	18,014.3	18,761.8	18,365.0	18,565.0	17,997.5	18,268.9
(증감액)	1,996.5	3,611.7	334.1	549.3	-396.8	200.0	-567.5	271.4
(회전율)	50.3	34.2	26.7	40.3	35.9	32.7	42.7	35.6
실질예탁금 증감	-3,502.6	3,775.5	-13,274.3	448.4	-498.8	105.6	-619.8	243.9
신용잔고	59,709.0	44,763.0	39,124.0	4,522.3	4,534.8	4,537.7	4,560.2	4,589.1
미수금	1,778.0	1,877.0	1,241.0	201.2	107.4	112.8	110.4	120.7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4/25(목)	04/26(금)	04/29(월)	04/30(화)	05/02(목)
전체 주식형	91,518	-2,267	-126	-427	-64	13	14	-126
(ex. ETF)		-2,655	-64	-104	5	13	16	-64
국내 주식형	67,291	-1,160	-113	-437	-53	13	26	-113
(ex. ETF)		-1,556	-51	-113	16	13	28	-51
해외 주식형	24,227	-1,107	-13	9	-11	0	-12	-13
(ex. ETF)		-1,099	-13	9	-11	0	-12	-13
주식 혼합형	9,709	-220	23	7	4	23	10	23
채권 혼합형	22,246	3,360	78	20	203	10	89	78
채권형	54,966	3,313	36	434	428	239	-326	36
MMF	65,389	1,477	177	-2,724	-2,282	-1,324	-2,337	17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4/26(금)	04/29(월)	04/30(화)	05/02(목)	05/03(금)
한 국	-5,264	-107	2,356	-112	-162	29	-79	-28
대 만	1,774	269	2,597	181	361	352	269	-
인 도	11,334	0	1,616	-	-	-	-	-
인도네시아	2,761	750	1,311	-22	11	55	749	-
태국	-563	-5	495	94	-40	49	-5	-
남아공	1,594	290	491	104	341	-190	290	-
필리핀	1,306	17	49	3	6	26	17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4/25(목)	04/26(금)	04/29(월)	04/30(화)	05/02(목)	05/03(금)
회사채 (AA-)	3.29	2.91	2.87	2.88	2.85	2.81	2.83
회사채 (BBB-)	8.80	8.53	8.49	8.50	8.47	8.43	8.45
국고채 (3년)	2.82	2.56	2.52	2.52	2.49	2.44	2.47
국고채 (5년)	2.97	2.63	2.58	2.59	2.56	2.51	2.53
국고채 (10년)	3.16	2.82	2.80	2.81	2.77	2.73	2.74
미 국채 (10년)	1.76	1.71	1.66	1.67	1.62	1.62	-
일 국채 (10년)	0.80	0.58	0.59	0.59	0.59	0.56	-
원/달러	1,070.60	1,112.10	1,112.30	1,107.20	1,101.20	1,101.00	1,097.10
원/엔	1,243.73	1,118.14	1,126.84	1,133.00	1,126.00	1,133.00	1,118.00
엔/달러	86.08	99.46	98.71	97.80	97.81	97.23	98.17
달러/유로	1.32	1.30	1.30	1.30	1.30	1.31	1.31
DDR3 1Gb (1333MHz)	0.67	1.05	1.05	1.05	1.05	1.05	-
DDR3 2Gb (1333MHz)	1.07	1.68	1.68	1.68	1.69	1.64	-
NAND Flash 16Gb (MLC)	1.89	2.99	2.97	2.97	2.98	2.98	-
CRB 지수	295.01	287.13	285.40	289.44	283.27	286.69	-
LME 지수	3,454.5	3,150.9	3,078.0	3,119.5	2,976.9	2,978.5	-
BDI	699	872	871	868	862	873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3.64	93.16	94.52	90.99	93.79	-
금 (달러/온스)	1,663.40	1,462.00	1,453.60	1,467.40	1,446.20	1,467.6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06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증감
4월 26일	253.04	254.40	0.93	1.36	0.89	132,640	117,074	-1,379
4월 29일	252.25	253.55	0.87	1.30	0.99	118,505	116,328	-746
4월 30일	255.72	257.15	0.86	1.43	1.32	177,521	121,531	5,203
5월 2일	254.92	255.70	0.82	0.78	0.79	152,189	116,653	-4,878
5월 3일	256.02	256.30	0.83	0.28	0.66	175,847	114,563	-2,090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4월 26일	838	798	-1,545	-289	-1,144	-62	-172	122
4월 29일	-382	617	-38	353	-398	85	17	-96
4월 30일	7,650	-735	-7,218	-5,211	-924	-48	-789	-245
5월 2일	-4,512	1,208	3,334	4,158	-1,006	88	145	-51
5월 3일	-2,968	1,455	1,290	549	557	-23	-2	209
누적포지션	-21,253	2,676	17,576	2,692	15,737	-488	-1,434	1,055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4월 26일	734	688	-46	708	640	-68	26	48	22	5,008	8,911
4월 29일	555	662	108	549	608	59	6	54	48	5,003	8,957
4월 30일	974	1,407	433	967	1,186	219	7	221	214	4,965	9,138
5월 2일	786	737	-48	770	725	-45	15	12	-3	4,968	9,138
5월 3일	683	623	-61	667	608	-59	16	15	-1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 / 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4.91	2,033	37,248	0.02	267.50	11.45	23	-5	18.87
	13.89	-188	111,941	0.05	265.00	9.25	95	-18	21.74
	13.11	9,625	148,536	0.14	262.50	6.80	3,014	-159	17.97
	12.73	1,305	258,524	0.41	260.00	4.65	9,068	564	16.68
	12.50	778	226,066	1.05	257.50	2.77	61,411	606	15.35
	12.15	1,608	176,881	2.22	255.00	1.43	200,120	3,479	14.88
	12.50	-308	14,651	4.05	252.50	0.69	193,720	2,506	15.41
	0.00	-272	6,817	6.05	250.00	0.29	186,392	2,048	15.81
	0.00	-1	624	8.45	247.50	0.12	150,409	7,670	16.56
	0.00	6	163	11.05	245.00	0.05	96,078	6,859	17.49
	0.00	-152	238	13.55	242.50	0.03	53,960	5,048	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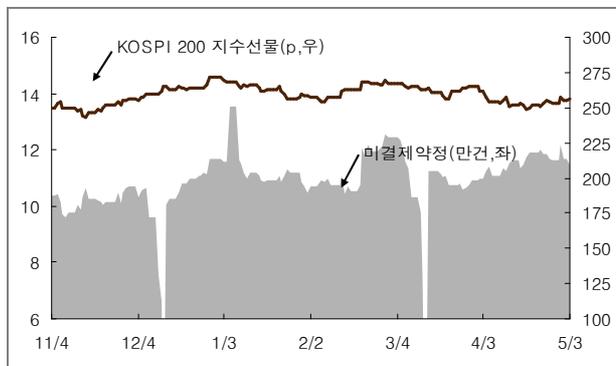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 평균 Basis: 0.66 (전 거래일 대비 0.13 하락)
- 이론 Basis: 0.83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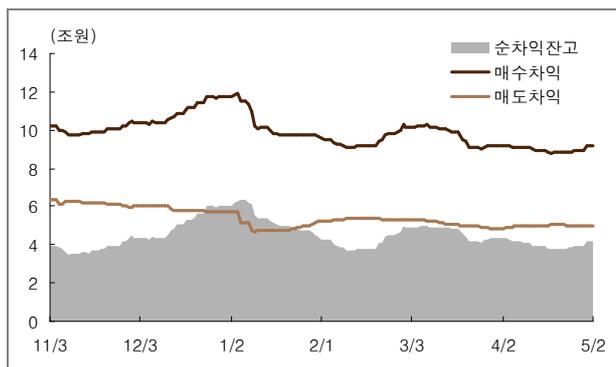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2,090 계약 감소한 114,563 계약
- 선물가격(256.30): 전 거래일 대비 0.60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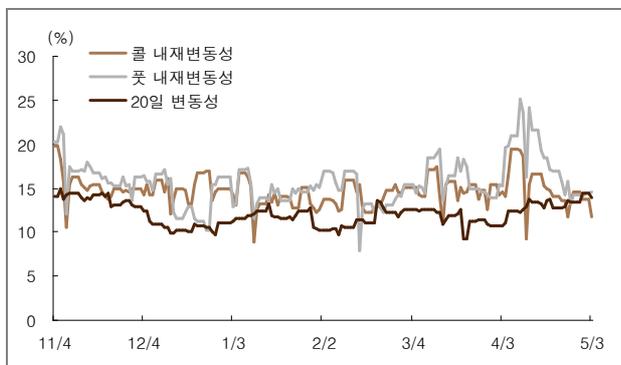
- 외국인: 2,968 계약 순매도
- 기관: 1,290 계약 순매수 / 개인: 1,455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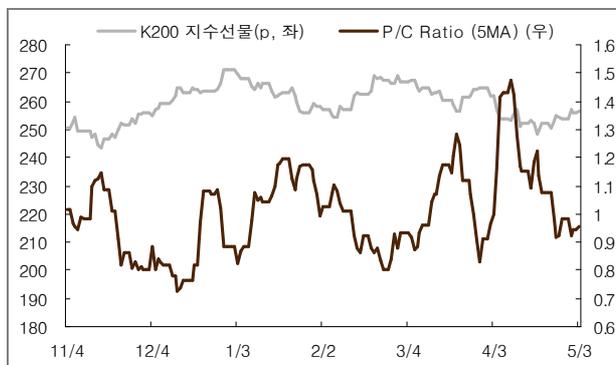
- 차익거래: 11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595 억원 순매도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1.7% / 풋 14.6%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3.85%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6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3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9	30	5/1	2	3
韓> 3월 경상수지 (\$497.9억, n/a, \$271.3억) 美> 3월 개인소비지수 (0.2%, 0.1%, 0.7%) 3월 미결주택매매 MoM (1.5%, 1.0%, -1.0%) 3월 미결주택매매 YoY (5.8%, 6.1%, 4.3%) 유럽> 4월 유로권 경제기대지수 (88.6, 89.5, 90.1) 4월 유로권 산업기대지수 (-13.8, -13.5, -12.3) 中> 3월 선행지수 (n/a, n/a, 100.23)	韓> 5월 제조업 BSI (81, n/a, 80) 3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0.2, n/a, -0.1) 美> 2월 S&P/CS 주택가격지수 (146.57, 146.43, 146.14) 4월 소비자기대지수 (68.1, 61.0, 61.9) FOMC 회의 유럽> 3월 유로권 실업률 (12.1%, 12.1%, 12.0%)	韓> 4월 소비자 물가지수 (-0.1%, 0.2%, -0.2%) HSBC 제조업 PMI (52.6, n/a, 52.0)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1.8%, n/a, 0.2%) 4월 ADP 취업자변동 (11.9만, 15.0만, 15.8만) 4월 ISM 제조업지수 (50.7, 51.0, 51.3) FOMC 금리결정 中> 4월 제조업 PMI (50.6, 50.7, 50.9)	美> 3월 무역수지 (n/a, -\$420억, -\$430억)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4.5만, 33.9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n/a, n/a, 300.0만) 유럽> 4월 PMI 제조업 (n/a, 46.5, 46.5) ECB 금리 공시 中> 4월 HSBC 제조업 PMI (50.4, 50.6, 51.6)	美> 4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n/a, 14.5만, 8.8만) 4월 실업률 (n/a, 7.6%, 7.6%) 4월 ISM 비제조업지수 (n/a, 54.0, 54.4) 中> 4월 비제조업 PMI (n/a, n/a, 55.6)
6	7	8	9	10
유럽> 4월 PMI 비제조업 (n/a, 46.6, 46.6) 5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 (n/a, -15.0, -17.3) 3월 유로권 소매판매 MoM (n/a, -0.2%, -0.3%) 3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n/a, n/a, -1.4%) 실적발표> 韓 SK브로드밴드	美> 5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n/a, 46.3, 46.2) 실적발표> 美 마라톤 오일, 타워스 왓슨, 듀폰	韓> 3월 M2 SA (n/a, n/a, 0.7%) 4월 은행가계대출 (KRW, 조) (n/a, n/a, 461.6조) 美> 3월 소비자신용지수 (n/a, \$160억, \$182억)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1.8%) 中> 4월 수출 (YoY%) (n/a, 10.0%, 10.0%) 4월 수입총액 (YoY%) (n/a, 13.2%, 14.1%)	韓> 금동위 기준금리 발표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3.2만, 32.4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n/a, n/a, 301.9만) 中> 4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2.3%, 2.1%) 4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2.3%, -1.9%) 실적발표> 韓 DGB금융지주, NHN, CJ CGV	韓> 4월 수출물가 MoM (n/a, n/a, 0.3%) 4월 수입물가 MoM (n/a, n/a, -0.8%) 日> 3월 경상수지 YoY% (n/a, -5.0%, -47.0%) 실적발표> 韓 에스에프에이, 다음, 엔씨소프트
13	14	15	16	17
美> 4월 소매판매액 지수 기업재고 中> 4월 산업생산 (YoY) 4월 소매판매 (YoY)	美>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유럽> 3월 유로권 산업생산 (wda, YoY) 실적발표> 韓 삼성화재, 한화	韓> 4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4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MoM 4월 산업생산 5월 NAHB 주택시장지수 유럽> 1분기 유로권 GDP (계절변동조 정, 전년대비) 1분기 유로권 GDP (계절변동조 정, 전년대비) 日> 4월 소비자기대지수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4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MoM 4월 건축허가 MoM% 유럽> 4월 유로권 CPI (전월대비) 3월 유로권 무역수지 3월 유로권 무역수지 日> 1분기 국내총생산량 3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3월 산업생산 (전년대비%)	美> 4월 경기선행지수 유럽> 4월 EU27 신규 차량등록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